
국제화출장 결과 보고서

2019. 01.

세종특별본부
단지설계부

||| 목 차 |||

I. 출장개요	1
II. 출장내용	4
1. 뉴욕	4
1-1. 뉴욕현대미술관	4
1-2. 자연사박물관	6
1-3. 아트디자인박물관	8
1-4. 뉴욕박물관	12
1-5. 구겐하임미술관	15
1-6.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17
1-7. 뉴욕 유대인박물관	20
1-8. 큐퍼 휴잇디자인박물관	22
2. 워싱턴	24
2-1. 국립항공우주박물관	24
2-2. 스미스소니언 재단	25
2-3. 국립자연사박물관	27
2-4. 국립흑인박물관	29

I.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 향후 행복도시의 발전 모델인 뉴욕·워싱턴은 공연·체육·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세계적인 문화 중심지임.
- 특히 뉴욕 및 워싱턴은 스미스소니언 국립박물관단지, 메트로폴리탄, 구겐하임 박물관 등 다양한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행복도시 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 계획을 위해 참고가 되는 지역임.
- 금회 해외 선진사례 조사를 통하여 행복도시 박물관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문화 콘텐츠 공유, 시민 휴식 기능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행복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명품 박물관 건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향토유물 박물관 사업 개요

- (추진목적) 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문화재 조사로 구석기~조선시대 약 3만점 향토유물 보관·활용을 위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 추진
- (추진배경)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향토유물박물관 건립

<행복도시 개발계획 중 문화재 보호 계획>

- * 현상보존 또는 이전·보전이 필요한 문화재를 중심으로 야외 전시시설이나 테마를 지닌 역사공원 및 박물관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문화공간 제공

- (건립규모) 1-1생 고운뜰 근린공원 內 건축 연면적 1만㎡ 내외
- (건립비용) 추정공사비 약 350억원(토목, 조경비용 제외)
 - * (건축) 설계비 15억, 공사비 240억 / (전시시설) 설계비 5억, 공사비 88억

< 건립 예정 위치도 >



□ 출장 개요

- (기 간) '19. 11. 14. ~ 11. 22.(7박 9일)
- (출 장 국) 미국(뉴욕, 워싱턴 D.C)
- (출 장 자) 4명(LH 3명, 세종시 1명)

소 속	담당	직 급 (직 위)	성명	역 할
합계			4명	
LH	단지설계부 (박물관 건립)	2급(부장)	한병화	○ 박물관 설계 및 공사 추진 시 주안점 도출 ○ 사물인터넷(IoT) 활용한 전시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최첨단 전시기법 활용사례 조사
		3급(차장)	김영민	○ 박물관 건축디자인 및 구조, 설계방식 등 사례조사 ○ 카페, 레스토랑, 기념품 판매소 등 박물관 편의 시설 활용 사례조사 및 적용방안 모색
		4급(대리)	전진원	○ 박물관 쇼케이스, 조명, 온습도장치 등 전시설계 조사 ○ 가상현실, 인터랙티브미디어, 홀로그램 등 실감형 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전시 교육사례 조사
세종시	시립박물관 건립TF	학예연구사	조남준	○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박물관 정책 수집 ○ 박물관 관람객 유치 방안 조사 ○ 박물관 전시 유물확보에 관한 사항

○ (주요내용)

-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건축, 전시 등 사례조사
-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최첨단 전시기법 활용사례 조사
- 박물관 운영 및 관람객 유치에 필요한 박물관 정책 수집

□ 출장 일정

출장일정 월 일(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이동수단 (비행편명)
11. 14(목)	인천공항 (10:50)	뉴욕 (10:50)		-출국(14 시간소요) -11:00~14:00 : 숙소 이동 및 정리 -14:00~18:00 : 뉴욕 역사박물관 (뉴욕의 역사를 담은 박물관으로 행복도시역사를 담기위한 전시기법 조사)	OZ 222
11. 15(금)	뉴욕			-09:00~12:00 : The Jewish Museum (유대인의 역사 및 문화를 담은 박물관으로 기존행복도시 주민의 역사 및 소장품 등을 전시하기 위한 사례 조사) -13:00~18:00 쿠파 휴잇 스미스소니언 디자인 박물관 [박물관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 및 교육 프로그램 사례 조사]	
11. 16(토)	뉴욕			-09:00~12:00 : 아트디자인박물관 (박물관 방문객 유치를 위한 문화시설(카페,식당, 기념품샵 등) 사례 조사) -13:00~18:00 구겐하임 미술관 (박물관 디자인 및 전시 스토리라인 조사)	
11. 17(일)	뉴욕			-09:00~12:00 : 뉴욕 자연사박물관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 첨단 전시기법 활용사례) -13:00~18:00 :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조명, 바닥재 등 전시공간 구성 및 카페, 기념품 판매소 등 편의시설 활용사례 조사)	
11. 18(월)	뉴욕	워싱턴	이동	-09:00~14:00 : 워싱턴 숙소 이동 및 정리 -14:00~18:00 : 국립 자연사 박물관 (전시물수가 1억이 넘는 박물관으로 공간구성 및 전시기법 조사)	기차
11. 19(화)	워싱턴			-09:00~18:00 : 스미소니언 박물관단지 및 재단 (국립항공우주박물관, 국립흑인역사문화박물관, 국립자연사 박물관 견학)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와와의 차별성을 위한 향토유물박물관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11. 20(수)	워싱턴	뉴욕		-09:00~14:00 : 뉴욕으로 이동 -14:00~18:00 : 뉴욕현대미술관 (전시 스토리라인 구성 및 연출방법)	
11. 21(목)	뉴욕 (13:00)		이동		OZ 222
11. 22(금)		인천공항 (17:30)	이동		

II. 출장 내용

1 뉴욕(NEW YORK)

① 뉴욕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 (개요) 뉴욕현대미술관은 1929년 근대 미술을 미국에 보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모마(MoMA)'라는 애칭으로 널리 불리고 있다.



<뉴욕미술관 휴관 광고>

18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5만 점이 넘는 소장품이 있다. 2004년 11월 일본인 건축가 타니구치 요시오의 설계로 리노베이션한 것을 포함하여 75년간 총 7번의 증개축 공사를 했다. 방문 직전인 2019년 6월 15일~10월 20일 임시휴관을 하여 리모델링을 하였다. 미술관은 6층 규모로 야외의 조각 정원에서는 현대 조각의 걸작과 사계절을 장식하는 나무와 식물, 인공 연못 등도 즐길 수 있다. 그 밖에도 미술관 내에는 모마의 오리지널 상품에서부터 2,000원 이상의 예술 관련 서적과 포스터 등을 갖춘 '뮤지엄 스토어(Museum Store)', 프렌치 아메리칸 레스토랑 '더 모던(The Modern)', 조각 정원과 미드타운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카페 '테라스 5(Terrace 5)', 이탈리아 레스토랑 '카페 투(Cafe 2)' 등이 부설되어 있다.

- (주요작가)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잭슨 폴락, 고흐, 고갱, 세잔, 마네, 모네, 클림트, 샤갈, 마티스, 피카소
- (대표작품)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The Starry Night)',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Les Femelles d'Avignon), 앤디워홀의 황금빛의 마릴린 먼로(Gold Marilyn Monroe) 등

○ (답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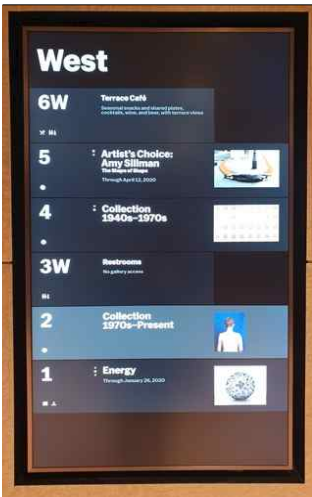
모마 기념품샵



모마 기념품샵 내부



모마 기념품



층별 안내판



1층 무료전시관



무인발권기

- (시사점)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미술관으로 도심속에서 쉽게 현대와 근대미술을 만날 수 있어 뉴욕커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미술관 내부의 기념품샵과 외부에 디자인스토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단순한 모마 방문 기념품을 넘어 실생활용품 디자인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이 흥미롭다. 미술관 디자인에 맞게 별도의 무인 발권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1층은 관람료없이 무료 관람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미술 진흥을 위해 의료업체인 유니크로와 협업을 통해 금요일 저녁은 무료입장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기업과의 협업 >

② 뉴욕 자연사 박물관(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 (개요) 뉴욕 센트럴파크 서쪽에 위치한 총 면적 9만m²를 넘는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이다. 1869년에 설립하였다. 영화 '박물관이 살아 있다.'의 촬영장소이기도 하다. 자연 서식지와 동식물의 생태를 보여주는 입체 모형 및 실물 모형 제작과 현지 탐사 장면의 전시 분야를 개척하였다. 세계 각지에 탐험가들을 파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식물학, 지질학, 인류학, 천문학, 어류학, 무척추동물학, 포유류학, 곤충학, 파충류학, 조류학, 고생물학 등 분야가 광범위하다. 소장품은 약 1600만 점이며, 화석마·공룡 등 화석동물과 남태평양의 민속학 자료가 유명하다. 또 세계 최대의 운석아니하이트가 있고, 세계 최대 박물관인 헤이든-플라네타리움이 일부를 이룬다. 지름 23m에 이르는 스카이 시어터도 있다. 바하마 제도, 플로리다주, 애리조나주, 뉴욕에 상설 연구소가 있고 자연사 관련 서적 40만 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교육활동도 실시한다.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 중 >

- (답사 사진)



자연사박물관 트레이드마크인 입체, 실물모형 전시로 현실감 극대화



신석기, 구석인 및 인디언 생활사 복원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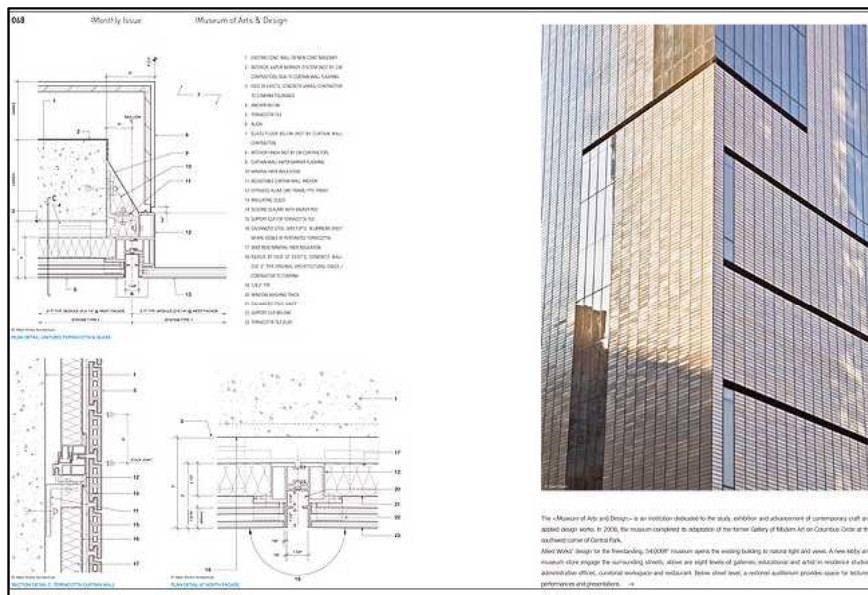
자연환경 전시

- (시사점) 짧은 시간동안 보고 벤치마킹하기에는 너무 방대하여 향토유물박물관에 구현하고자 하는 전시물 위주로 관람을 실시하였다. 특히 자연사박물관의 강점인 생활사와 실물모형의 복원이 잘 되어 있으며, 그림과 함께 입체적으로 전시되어 고대인 생활사 복원전시에 반영이 필요하다. 또한 자연환경에 대한 전시는 자연사박물관의 모델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3 아트 디자인 박물관(Museum of Arts and Design)

- (개요) 아트 디자인 박물관은 현대 공예와 응용 디자인 작품들을 연구·전시 및 개발하는 기관이다. 이 박물관은 2008년, 센트럴 파크(Central Park) 남서쪽 모퉁이의 콜럼버스 서클(Columbus circle)에 있던 구(舊) 현대미술관을 개축한 것이다. 단독 건물로 설계한 이 박물관은 기존 건물에 자연광과 시야를 열어준다. 새로운 로비와 박물관 매장은 주변 거리와 관계를 맺고, 건물 상부에는 8개 층의 갤러리와 교육실, 예술가 레지던시 스튜디오, 행정사무실, 큐레이터 업무 공간과 레스토랑이 있으며, 지하층에 복원한 강당은 강연과 공연, 발표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건물의 기존 콘크리트 외피에는 일련의 세 틈이 관통하도록 설계되었는데, 각 틈이 하나의 연속된 선으로 이어져 입면과 벽체, 바닥, 천장을 통합함에 따라 건물은 하중을 담당하던 기존의 어두운 외피 구조에서 빛이 가득한 캔틸레버 구조로 전환된다. 투명 유리와 소결 유리(fritted glass)를 채워 넣은 이 틈들은 테라코타(terracotta) 타일로 마감한 새 입면을 가로지르며

엮어낸다. 수백 년 된 한 네덜란드 회사가 제작한 22,000개의 타일에 시간대와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무지갯빛 match 유약 처리를 했다. 이 건물은 브로드웨이



<아트 디자인 박물관의 독특한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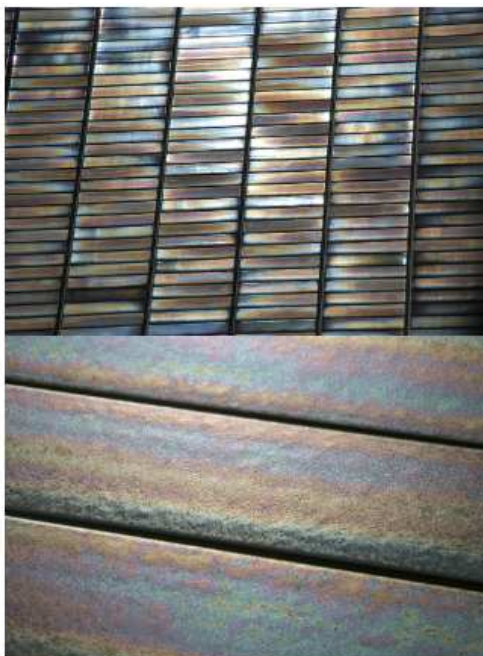
따라 센트럴 파크를 가로질러 허드슨(Hudson) 강 쪽으로 시야가 확장하면서 대지의 여러 힘들을 그려모으는데, 이로써 콜럼버스 서클의 새로운 기준점을 설정하고 뉴욕 시를 위한 새로운 창조적 에너지의 중심을 만든다.

① **세라믹을 주재료로 사용한 이유?** 아트 디자인 박물관은 뉴욕에서는 흔치 않게 사방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유광 처리한 외장재가 자연광과 반응하면서 건물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색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이다. 10"x30" 테라코타 타일에 무지갯빛 맞춤 유약을 칠해 뉴욕 시의 외부 환경을 건널 수 있게 했다.

② **세라믹을 다루는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과정의 주안점은?** 외장재의 맞춤유약을 계획할 때, 외적 요소와 날씨 조건에 건널 수 있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테라코타는 건설재료로 사용하기에 상당히 간편한 세라믹 재료다. 테라코타를 외부 입면에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타일 시스템을 건물에 바로 부착하는 방식이 아닌 공간을 띄운 방수층(레인스크린)으로서 활용하여 재료의 수명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모델링 이전 박물관 전경>



<세라믹 외장재>

③ **세라믹의 질감을 위해 어떤 특별한 작업이나 처리를 하였는가?** 초기에 표면 질감을 관찰하는 여러 연구를 했으나, 그런 질감이 무지갯빛 효과를 중화시켰다.

④ **작품의 개념, 건축가의 의도, 주제 표현 등을 위해 세라믹의 물성, 느낌 또는 디테일이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빛의 질이 설계 개념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우리는 외부가 자연광에 반응하면서 하루 중 시간대와 날씨 조건, 사람들의 시선 등에 따라 변화하길 원했기 때문에, 건물의 외장 설계는 맞춤유약이 제공하는 시각적 가능성에 큰 영향을 받았다. 통상적인 자연광 조건에서 유약은 무채색의 백색을 띠지만, 건물에 직사광선이 닿을 때 어떤 각도에서 보면 건물이 무지갯빛을 띠게 된다.

⑤ **건축자재로써 세라믹의 쓰임이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맞춤제작 유광 세라믹은 건축적 의도를 관찰할 수 있는 특별한 가능성과 가변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건축가에게 매우 매력적인 재료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테라코타의 구조적 단순성과 안정성을 고려해보면, 세라믹은 건축 재료로서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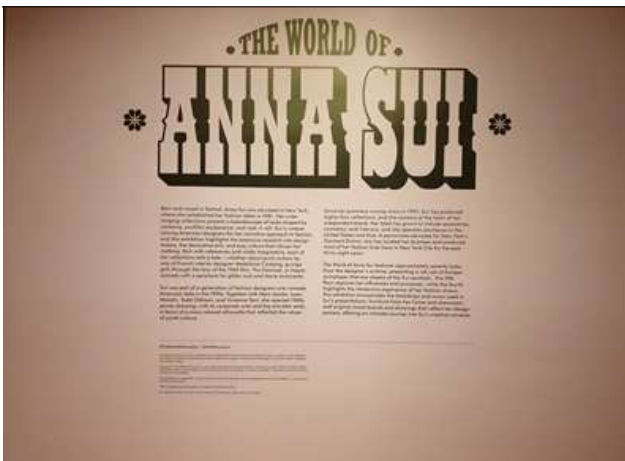
○ (답사 사진)



옥상 레스토랑



서랍을 이용한 전시공간 구성



의류디자이너인 안나수이 전시



디자인 실용적으로 쓸수 있도록 기념품 샵에서 판매

- (시사점) 도심에 위치한 빌딩형 미술관으로 옥상에 레스토랑이 입점해 있는데 경관이 좋아 지역 명소 레스토랑으로 자리잡고 있다. 식사만을 원하는 사람은 별도의 관람료 없이 옥상 레스토랑 접근이 가능하면 관람객과 구분하기 위해 관람권에 일부 스티커 부분

을 옷에 붙이게 하였다. 미술관으로 현대작가의 발굴을 위해 공모를 통해 매년 신규 작가를 모집할 수 있는 오픈스튜디오가 있다. 전시는 안나수이 등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디자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상업적 디자인과 과감히 전시하고 있으며 기념품샵에는 안나수이 화장품 에디션 등을 판매하고 있다. 오픈스튜디오 작가들이 만든 다양한 공예품들이 기념품샵에서 판매되고 있어 박물관 motto(디자인하는 것만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만들어 내는 것이다.)처럼 현대 공예와 응용 디자인 작품을 연구, 전시, 개발하고 있다. 또한 건축 디자인 면에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외장재를 이용하여 뉴욕 도시 디자인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였다. 향토유물 박물관도 행복도시의 하나의 건축물이자 도시의 디자인의 일부분으로 건립대상지와 주변과 맞는 디자인으로 설계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픈 스튜디오 입주 작가 인터뷰>

- (통역 및 안내) 설원재단(Seol Won Foundtion) 뉴욕 지사의 에린 은영(Erin Eunyoung) 실장
- (인터뷰 내용) 박물관에서 매년 작가 선발을 통해서 자유로운 작품활동을 보장하며, 박물관에서 전시도 가능하고 본인 별도의 자신의 작업공간이 있으나 선발되며 작품성을 보장받는 만큼 지원하게 됨"



예술가 오픈스튜디오, 작가를 선발하여 공간 제공

4 뉴욕박물관(Museum of the City of New York)

- (개요) 센트럴파크 주변에 유대인박물관, 구겐하임미술관, 노이에박물관, 쿠퍼 휴이트 스미소니언 디자인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등 박물관 밀집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1923년에 개관한 미술관이자 역사박물관이다. 조셉 J. 프리드랜덜(Joseph J. Freedlander)가 디자인하였다.

뉴욕시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1982년 뉴욕 백년협회(The Hundred Year Association of New York)로부터



<뉴욕박물관 CI>

금메달을 받았고 비영리 사설 기관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는다. 뉴욕시와 거주민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과 사진, 의복, 가구, 희귀 도서와 군대, 경찰, 소방관 관련용품 등을 전시하며, 존 D. 록펠러(John



<뉴욕박물관 외부 전경>

D. Rockefeller)의 저택이 재현된 전시 공간이 있다. 또한, 뉴욕 역사에 대한 대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답사사진)



뉴욕박물관 전시실 전경



뉴욕박물관 전시실 전경



뉴욕박물관 전시실 전경(뉴욕시의 확장)



뉴욕박물관 전시실 전경(연대별 뉴욕 역사)



뉴욕박물관 전시실 전경(뉴욕 여성인물)



뉴욕박물관 전시실 전경(뉴욕시의 역사)



뉴욕박물관 전시실 전경(옛 직업 체험)



뉴욕박물관 전시실 전경(도시의 역사)



뉴욕박물관 미술전시실

- (시사점) 뉴욕의 역사를 시대순으로 전시한 박물관으로 건립예정중인 향토유물박물관하고 주제나 규모면에게 가장 유사한 박물관이다. 뉴욕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도시의 역사를 표현하는데 더 없이 좋은 모델이다. 뉴욕시의 영역 확장을 보여주는 모니터는 행복도시 개발확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에는 전화연결원, 미싱공 등 과거 뉴욕의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 정확히 구분하는 한국과 다르게 뉴욕의 역사뿐만 아니라 뉴욕 미술도 박물관 내에서 모두 소화하고 있다.

5 구겐하임 미술관(The Solomon R. Guggenheim Museum)

- (개요) 미국 철강계의 거물이자 자선사업가인 솔로몬 구겐하임(Solomon R. Guggenheim)이 수집한 현대미술품들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원래는 1937년 비대상회화미술관(Museum of Non-objective Painting)이란 이름으로 개관하였으나 1959년 구겐하임미술관으로 개칭하였으며, 설립 초기부터 구겐하임재단이 운영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1943년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의 설계에 따



<구겐하임 미술관 외부 전경>

라 착공하여 1959년 완성되었다. 큰 달팽이 모양의 외관과 탁 트여 통풍이 잘 되는 천장을 중심으로 한, 계단 없는 나선형 구조의 전시장이라는 독특한 설계로 인기를 모았고 준공되자마자 뉴욕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 소장품은 현대미술의 장려와 진흥을 표방한 창립자의 의도에 따라 20세기의 비구상·추상계 작품이 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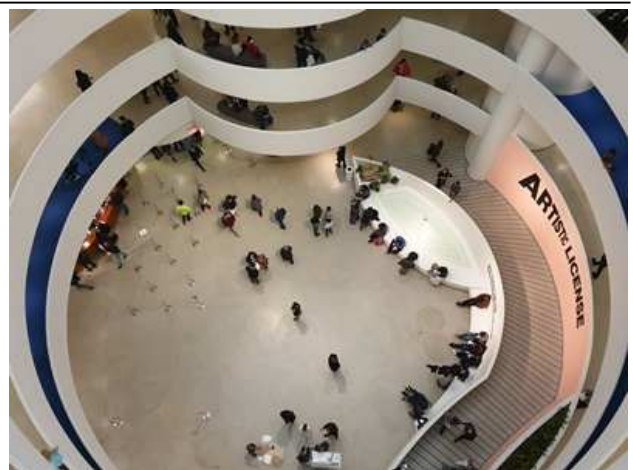


<구겐하임 미술관 내부 전경>

분이지만, 피카소(Pablo R. Picasso)의 초기작품과 클레(Paul Klee), 샤갈(Marc Chagall), 마르크(Franz Marc) 등의 작품도 전시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180점이나 되는 칸딘스키(Vasily Kandinsky)의 컬렉션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 (시사점) 독특한 외관으로 세계적인 미술관 반열에 오른 구겐하임미술관으로 내부 공간도 원형의 길이 계속 이어지면 올라가는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쉽게 관람공간을 접근성을 높인 점에서 박물관 전시동선 구성에 고려해 볼만하다. 방문 시 특히 주목되는 점은 10인 작가가 수장고에서 잠들어 있는 미술작품을 자신이 기획하여 전시하는 방식인데 향후 박물관 건립 시에 수장고에 잠든 유물을 큐레이터를 통해 전시하는 기획전시를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답사사진)



내부 보행로를 이용하여 전시

6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 (개요) 186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외교관 J.제이(1817~1894)가 파리에서 한 연설을발단으로 설립운동이 구체화되었으며, 뉴욕 시민의 노력으로 1870년 임대건물에서소규모로 개관하였다가 1880년 센트럴 파크의 지금 위치로 옮겼다. 유럽의대미술관과 비교할 때 역사는 짧지만 그 동안의 기증품·구입품, 탐험에 의한발굴품 등 학문적으로 귀중한 소장품이 급속도로 늘었다. 1954년 대규모 개축으로 근대식 전시장을 완비하여 오늘날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세계 굴지의 종합미술관이 되었다. 수집품은 이집트 미술, 그리스 미술, 중세미술, 유럽의 회화, 미국의 회화, 기타극동 및 고대 중·근동 미술, 그리고 조각·공예·판화·무기류·코스튬·가구 등 선사시대 이래의 인류역사의 산물인 세계 각국의 유물 총 200만 점 이상을 소장하고 있다. 회화에는 엘그레코, 렘브란트, 페르멜, 인상파와 그 이후의 작품에 명작이 많다. 또한 수많은 장서와 정기간행물, 사진 슬라이드를 보존하고 있다.



그림 49

- (시사점) 세계 3대 박물관의 명성답게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대형 박물관인만큼 관람객들의 피로를 고려하여 곳곳에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전시실과 인접한 공간임에도 간단한 식사도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다. 지하를 통해 장애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별도의 옷 보관장소를 운영하고 있어 겨울철 외투로 인해 관람의 불편하과 옷으로 인해 유물 훼손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전시 해설 프로그램에서 대규모 박물관으로 긴 해설시간을 고려해 의자를 들고 다니면서 앉아서 해설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스모소니언재단 정양양 이사 면담>

- (면담자) 정영양 박사*(메트로폴리탄 뮤지엄 텍스타일 연구소, 스미소니언재단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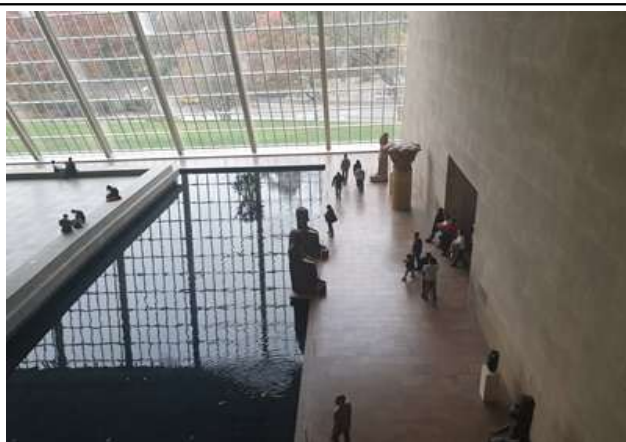
* 1976년 뉴욕대학교에서 "자수의 기원 및 중국, 일본, 한국에서 자수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박사학위 취득

※ **한국인 최초로 스미소니언 재단의 이사로 선출**되었으며, 연구자이자 예술가로 그의 자수 작품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워싱턴 스미소니언 뮤지엄 등에 소장

- (면담내용) ① 미국 박물관은 학예사가 전시 기획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활동 보장, 단, 전시책임제를 통해 전시 성공여부에 대한 학예사의 책임 부여 ② 미국의 모든 박물관은 상업적 요소를 통해서 최대한 박물관 경쟁력 강화, 박물관 전시 공간에서도 연회 등 가능할 정도로 상업적임 ③ 박물관 운영에 상당부분을 기부를 통해 추진할 정도로 박물관 기부 문화 활성화 ④ 향후 향토유물박물관 건립 시 소장 중인 작품에 대한 특별전 지원 가능 ⑤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뉴욕 및 워싱턴 박물관과 협력망 구성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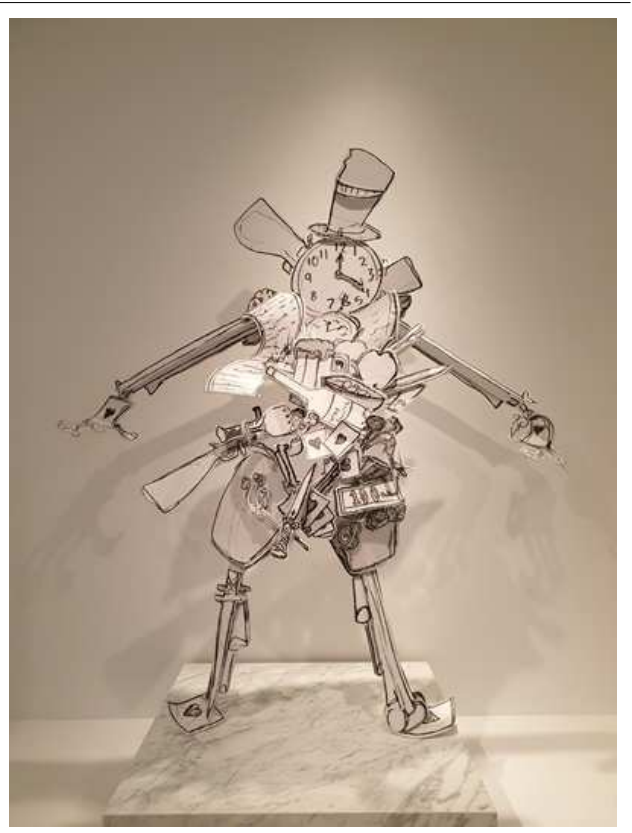
○ (답사사진)



7 뉴욕 유대인 박물관(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 (개요) 유대인 박물관(The Jewish Museum of New York)은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유대인 박물관이다. 미국 최대의 유대인 박물관으로, 유대교의 역사, 문화 등 약 26,000여 점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다. 원래 이 건물은 유대인 금융가 펠릭스 M. 와버그의 저택이었던 펠릭스 M. 와버그 하우스로 사용되던 곳이다.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의 유대인의 역사와 함께 19-20세기의 벌어진 유대인 대학살 역사를 소개하고 교육하기 위해 1997년 9월 15일 설립되었다. 유대교 다윗의 별(Star of David)과 유대인 대학살의 피해자 600만 명을 상징하는 육각형의 지붕이 건물의 특징이다. 유대 역사와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서적, 의복, 공예품, 종교 물품 및 사진 약 25,000점이 '1세기 전의 유대인 삶(Jewish Life a Century Ago)', '반유대 전쟁(The War Against the Jews)', '유대인의 부활(Jewish Renewal)'을 주제로 구분, 전시된다. 전시와 함께 박물관은 유대인 대학살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방영하여,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한다.
- (시사점) 박물관과 미술관이 혼합된 형태로 유대인의 역사부터 현대 미술까지 다양하게 다르고 있다. 일반 건축을 개조해서 만든 건물로 층별로 전시실이 구성되어 있다. 엘리베이터에 층별안내가 적혀 있어 쉽게 원하는 공간을 찾게 되어 있다. 박물관 전체는 유대인의 역사 정체성 정립을 위해서 설립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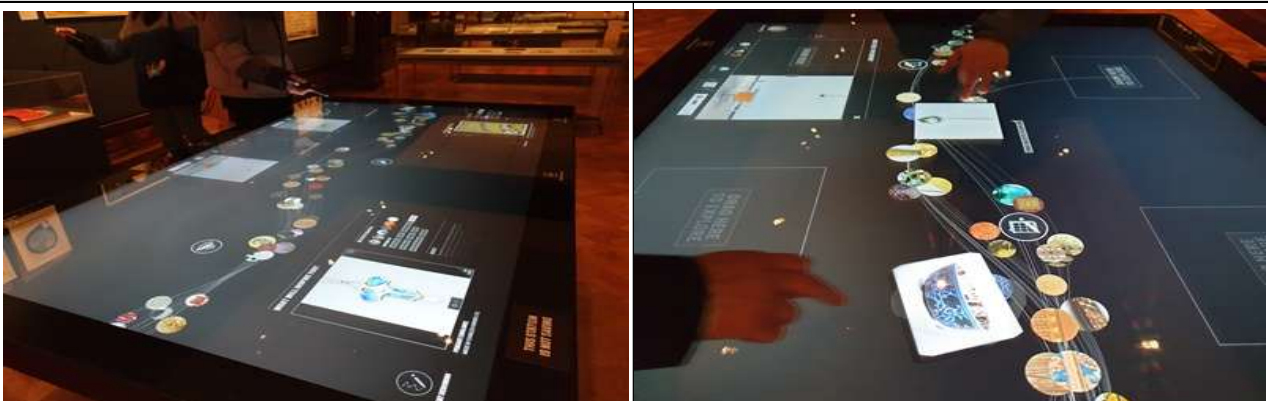
○ (답사사진)



8 쿠퍼 휴잇 스미스소니언 디자인 박물관(Cooper Hewitt Smithsonian Design Museum)

- (개요) 미국 뉴욕의 미술관이 한데 늘어난 거리인 '뮤지엄 마일'에 위치하였다. 건물은 미국 최대 철강 회사의 소유주였던 앤드루 카네기(Andrew Carnegie)의 맨션을 개조한 것이다. 1897년 쿠퍼유니온 예술·공과대학이 순수예술의 위계 속에서 디자인을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분리시키고, 디자인 전공자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쿠퍼유니온 장식미술뮤지엄을 설립한 것이 시초다. 현재의 명칭으로 바뀐 것은 1967년 스미소니언(Smithsonian) 협회 산하 기관이 되면서다. 세계적인 디자인 도서관을 포함해 25만 개의 디자인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으며 파슨스 디자인 대학과 연계한 디자인사 석사학위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손꼽히는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 (시사점) 가장 흥미로웠던 박물관으로 입구에서 펜을 나눠주는데 펜을 통해서 다양한 전시를 기록할 수 있고 기록한 자료는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진다. 자신의 그림 문양이 페턴이 된다는가,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선택하도록 한다든지 체험 위주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넓은 스크린에 유물의 그림이 지나가고 터치할 때 큰 사진과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 (답사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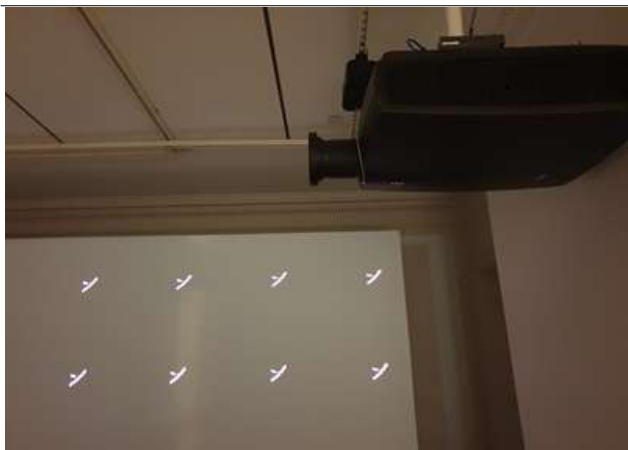


디지털 유물안내판(자신에게 드래그하여 이메일로 전송 가능하며, 설명도 볼 수 있음)

○ (답사사진)



참여형 전시



메모판에 그림 그림이 빔프로젝트를 통해 패턴화



디자인박물관의 다양한 전시

2 워싱턴

1 국립항공우주박물관(Smithsonian National Air and Space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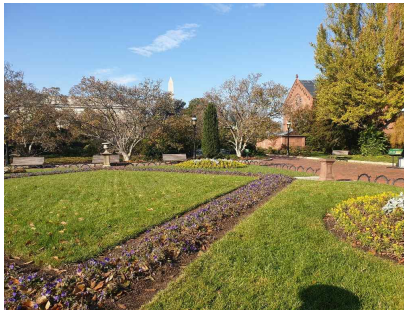
- (개요) 1946년 국립항공박물관으로 처음 개관하였다가 1976년 대대적인 시설 확충으로 현재의 모습과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스미소니언협회(Smithsonian Institution)가 설립하여 미국 정부에 기증하였다. 박물관에는 전 세계에서 운행되었던 항공기의 실물과 모형, 우주선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항공우주과학의 발달과 관련된 자료·장비들이 전시되어 있다. 지구와 행성 연구센터(Center for Earth and Planetary Studies, CEPS)가 있다. 박물관의 입구 홀에는 1903년에 제작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플라이어',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한 린드버그(C. Lindbergh)의 비행기 '스프릿오브세인트루이스', 아폴로11호의 사령선, 최초의 지구궤도 횡단 유인우주선 제미니 4호, 러시아의 소유즈 우주선, 세계 최초로 개인이 만든 우주선 스페이스십원(SpaceShipOne) 등이 공중을 나는 것처럼 전시되어 있다.
- (시사점) 항공과 우주산업을 선도하는 미국의 모습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곳으로 실제 우주비상들이 우주선에서 먹는 간식, 비상식량, 비행복 등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낸다. 향후 향토유물박물관에서 행복도시에서 실제 거주하였던 주민들의 물품들을 전시하는 계획을 수립할 시 참고가 될 만한 박물관이다.
- (답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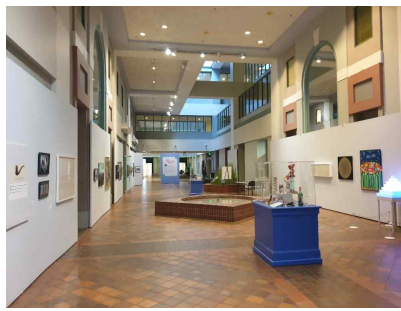
② 스미스소니언 재단(Smithsonian Institution)

<스미스소니언 재단 키스 윌슨 큐레이터 시설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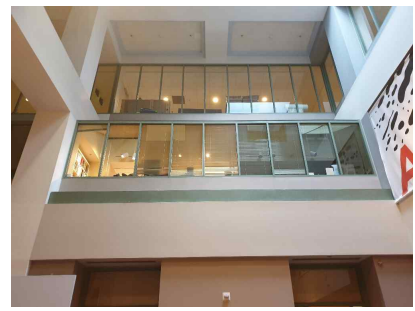
- (견학시설) 스미스소니언 협회, 아서 M. 새클러 갤러리, 국립 아프리카 미술관
- (담당자) J, 키스 윌슨(J, Keith Wilson) 중국 고대미술 큐레이터
 - * 중국 고대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미술까지 담당하는 큐레이터
- (통역 및 안내) 황선우(스미스소니언박물관 프리어갤러리 한국프로그램 어소시에이트)
- (주요내용) ① 아서 M. 새클러 박사 기증에 의해 만들어졌고, 기증유물은 유언에 따라 절대 외부로 반출하지 않음 ②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한국의 불상'을 전시 중으로 3D 스캔, 엑스레이 투사 등 입체적 유물 전시 설명 ③ 박물관은 주변의 고도제한을 피해서 대부분 지하로 있으며, 건물 일부만 지상에 노출되어 있음. 프리어 미술관, 국립아프리카미술관, 스미스소니언 협회가 지하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됨.



지상 공간 공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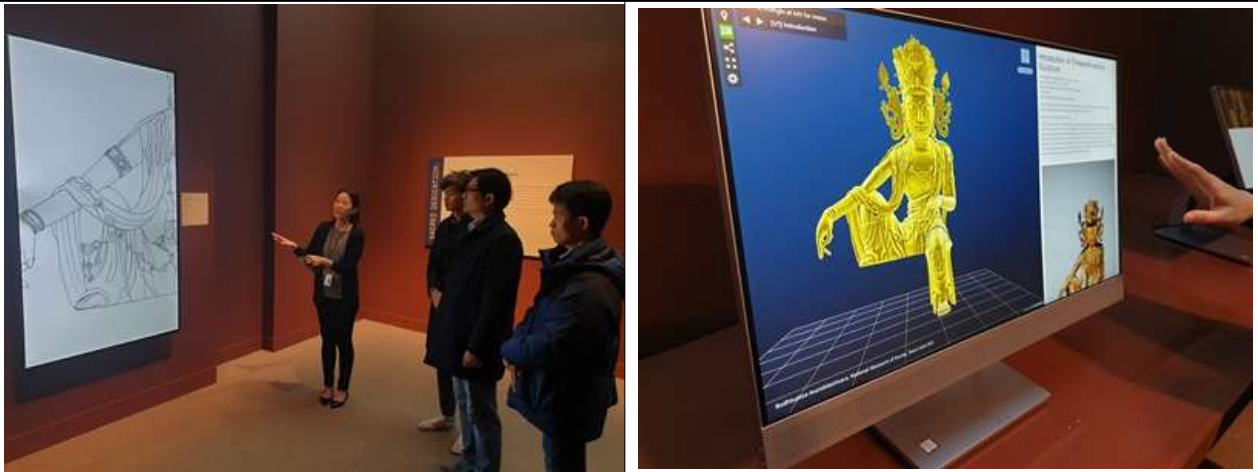
박물관 지하 사무공간



박물관 지하 사무공간



○ (답사 사진)



<3차원 스캔을 통한 불상 전시>



<귀족저택 일부 이전복원 전시>

③ 국립자연사박물관 Smithsonian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 (개요) 1910년 개관한 스미스소니언 국립 자연사 박물관은 지구가 탄생한 순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식물과 광물을 총집합한 대규모 전시장이다.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방대한 자연사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그 수가 무려 1억여 점이 넘는다. 이 박물관은 관람객을 위한 전시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 복합 연구 기관이다. 규모만 해도 어림잡아 축구 경기장 18개를 합친 크기라고 한다. 박물관의 하이라이트는 44.5캐럿짜리 세계 최대 블루다이아몬드인 ‘호프 다이아몬드(Hope Diamond)’와 1층 중앙홀에 있는 4미터짜리 세계 최대 아프리카 코끼리 박제이다. 특히 실감나는 실물 재현 전시로 유명한 이 박물관은 화석과 모형으로 생물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거나, 여러 가지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을 디오라마로 재현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전시되어 모든 세대의 관심을 끌 만하다. 곳곳에서 만나는 박제 동물들은 마치 당장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처럼 생생하다.
- (시사점) 초대형 박물관으로 시간 관계 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향토유물박물관에서 계획 중인 개방형 수장고와 비슷한 형태인 개방형 보존처리실이 있어 “박물관에서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충족해주고 있다. 자연사 박물관인만큼 자연환경을 표현할 때 최대한 리얼리티를 살렸다. 또한 신석기인들의 불 사용 방식이나 석기에 제작에 대해 영상과 모형 등을 통해 쉽게 표현되어 있다. 향후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시에 뉴욕자연사박물관과 함께 참고하여 건립해야 할 대표적 시설이다.

○ (답사 사진)



현실감을 높인 전시 기법



개방형 보존처리실

모형재현



④ 국립흑인박물관(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 (개요) 미국 흑인 역사 박물관은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 있는 박물관이다. 흑인의 역사에 관한 자료를 주로 전시한다. 박물관이 처음 세워진 것은 1963년이다. 박물관이 세워진 1960년대는 마틴 루터 킹, 말콤 X 등 흑인 운동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로 미국의 흑백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때였다. 미국 흑인 역사 박물관은 이 같은 사회적 갈등 속에서 흑인의 역사를 보존하고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박물관은 노예시대 역사와 흑인 인권 운동가들의 생애에 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시사점) 흑인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전문박물관으로 음악, 인권신장, 스포츠 등으로 주제별로 전시가 되어 있다. 층별로 구성되어 있고 전시동선이 단순하여 전시 관람이 용이하다. 뮤지엄샵에는 흑인을 테마로 한 다양한 상품이 하나의 브랜드처럼 구성되어 있다. 흑인박물관은 평범할 수 있는 건축물에 독특한 마감을 하여 아프리카의 느낌을 살렸다.
- (답사 사진)



출장자		항공사	마일리지			비고
사번	성명		이전	금회	현재	
111303	한병화	대한항공	11,879	-	11,879	
		아시아나	-	13,730	13,730	
114107	김영민	대한항공	-	-	-	
		아시아나	-	13,730	13,730	
116707	전진원	대한항공	-	-	-	
		아시아나	-	13,730	13,730	